

무안공항 개항 10년만에 인천 직항 개설

전남도, 에어필립과 주 7회 협약...빠르면 이달 말 취항

무안국제공항 개항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과의 직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일 도청에서 (주)에어필립 항공사와 투자유치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에어필립은 무안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매일 왕복 1회, 주 7회 운항할 예정이다.

무안-인천 노선이 열리면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이후 인천공항과의 첫 직항로가 된다.

앞으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안전운항 체계 변경검사'를 통과하면 취항할 계획이다.

과정이 순조로우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했다.

안전운항 체계 변경검사는 취항 전 운항 예정 항공기, 정비 체계 등 안전 저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운항 기준은 ERJ-145, 50인승 제트여객기다. 운항 기준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한 항공기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항공 선진국에서 대표적 지역 운송용 항공기로 사용하고 있다. 에어필립은 무안공항을 허브로 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항공기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무안공항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 등 국제선도 운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국내선, 국제선 개설이 용이해졌고, 인천공항 이용을 위한 지역민들의 시간과 경비절감 등 항공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에어필립은 전남지역에 항공기 경정비부터 중정비까지 자체 정비를 할 항공정비 시설 구축에도 투자할 예정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날 세한대, 초당대와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항공사와 대학교가 협력해 맞춤교육을 하고 교육생을 항공사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국내 중저가 항공사가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새 항공사도 잇따라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등 항공 분야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등 전문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협약이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안-보라카이 노선 잠정 중단...필리핀 정부 폐쇄 여파

필리핀 정부가 휴양지 보라카이 섬의 잠정 폐쇄를 추진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9일 부정기노선에서 정기노선으로 전환, 무안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무안~칼리보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

2일 전남도와 팬퍼시픽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무안공항에서 칼리보공항으로 떠날 예정이던 팬퍼시픽항공 8Y709편 운항이 취소됐다.

이후 오는 5일 칼리보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8Y708편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신원여객, 여흥휴가 등을 계획한 광주·전남지역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해 보라카이 섬에는 전년보다 16%

늘어난 2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했다. 무안~칼리보(보라카이) 노선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운항을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총 138편 1만6380명이 이용했다.

필리핀 현지 매체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필리핀 내무지역행정부(DILG)는 보라카이섬의 '자체적 회복'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보라카이 섬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필리핀 관광부도 보라카이 섬 호텔과 리조트에 새로운 인가를 내주는 것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라카이 섬이 폐쇄 순서를 밟는 것은 열악한 하수시설과 불법 건축물 등으로 환경 정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제역 방역 '구멍' 뚫렸다

김포 A형으로 밝혀져...전남도, 백신 못 구해 '발 동동'

전남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구제역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경기 김포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이 아닌 'A형'으로 밝혀지면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어미돼지 10만1000마리에 대해 지난 30일까지 일제 접종을 마쳤고, 소·염소 58만 2000마리에 대해서는 오는 7일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미돼지를 제외한 100만마리의 돼지다. 백신이 없어 4월 중순께 에어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돼지의 경우 그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만 검출됐다. 전남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는 O형 백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이 아닌 A형으로 밝혀지면서 보유하고 있던 A형 백신 모두를 어미돼지에 접종했다. 나머지 돼지 100만마리에 접종할 A형 백신이 동이 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긴급하게 백신 수입

에 나섰지만 4월 중순께에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확실한 구제역 예방법인 백신 접종이 늦어짐에 따라 소독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일까지였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1~2주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다만, 전남지역 내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가축 이동을 바라는 농장주는 농장 소재 시군 가축방역관에게 이동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입상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상검사는 이동 예정 하루 전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4일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축산차량 등을 일제소독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왼쪽)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조사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옥중조사에 실패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3차 옥중조사도 무산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조사 시도가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주무 검사인 신봉수(48)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 특수2부장 등이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이 전 대

령이 불응해 정오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 임회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와 교도관 등을 통해 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와달라고 거듭 설득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강 변호사를 통해 명단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조사는 무산됐다.

/연합뉴스

김정은 北 최고지도자 첫 南 예술단 평양공연 참석

부인 리설주 동행...출연진과 악수·기념사진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 부부는 이날 오후 6시 50분(서울시간 기준)부터 2시간 10분간 평양 동명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에는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등 총 11명(팀)이 올랐다. 서현이 맡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직접 관람한 바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관람이 예견됐다.

그러나 3일에 진행될 남북 합동공연에 참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

김 위원장 부부는 공연 관람 중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고, 공연 뒤 출연진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한 출연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화 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 남측이 '봄

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3일 공연을 보려고 했지만 다른 일정이 생겨 오늘 공연에 왔다"며 "북남이 함께하는 합동공연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순수한 남측 공연만 보는 것도 의미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동공연을 보셨는데 단독공연이라도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예술단 단장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공연 중 노래와 가사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공연엔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부부 외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취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창선 서기실장 등도 참석했다.

한편, 평양을 찾은 정부지원단 관계자는 1일 예술단의 첫 공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3일 남북 합동공연은 4시(북한 시간·한국시간 4시 30분)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의원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에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목희(65·사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 후임에 김정렬(57)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목희 부위원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한국노동연구원 소장을 역임하고 17

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충남 서천 출신의 김 신임 국토부 2차관은 고교 검정고시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영국 웨일스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토부 정책기획관과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장덕동 1층 단채상가 39㎡(보3천만/월 155만) 매 4.2억
- 수원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
- 산성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림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1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산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토 지

- 서구 매월동 대로변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옥 적합)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서구 세화동 1층주거 담 1,810㎡ 매 17억(창고적합)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변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옥적합)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적리 제2종주거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상산리 1층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읍시 신성동 전 3,300㎡ 매 4억5천(전원주택, 기본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원로, 비닷가토지, 남동향, 랜선, 카라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최고급 전원주택(별장)

▶정남진 장흥, 환상적인 해변의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 리조트, 선착장이 어울린 최고급 유럽풍 주택

토지 4,900㎡ / 건물 238㎡ → 매가 7억 2천

캐나다산 수입원목(100%) 목조건물로 최고급 수입 원자재 사용, 조망권 최고! 광주에서 45분!

◎ 남해안에 더이상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최고의
전원주택
단지

▶나주시 송촌동 동산대 인근 2차선 도로 접, 교통, 환경, 조망권 등 최상, 자연녹지 전

면적 16,200㎡ → 매가 22억

H. 010-4226-7722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매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신곡) 4번(진곡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